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높인다...



광주 북구청 전경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누리길 조성·장동저수지 보강 등 2개 사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구청장 신수정)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국비 1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15일 북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가 제한된 지역의 생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누리길 조성에 5억, 저수지 보강공사에 8억을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우선 각화동~청풍동 일원 총 4km 구간에 보행 매트, 목계단, 등의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에 조성된 누리길과 연계해 각화동 도심에서 무돌길을 거쳐 청풍동 일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준공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장동저수지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보수공사도 추진한다.

저수지 상류 사면의 제방을 보강하고 일정 저수량이 넘을 때 물을 빼내기 위한 방수로를 재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시반 시설 본연의 기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추후 북구는 지방비 매칭 등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누리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여가 활동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화동부터 청풍동까지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장동저수지 보강공사로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제방과 방수로를 정비해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정관 기자

광산구, 전남광주 최초 '인공지능 수기 고지서 자동화'

납세 정보 자동 인식해 전산 자료 입력

"세입 관리 효율 · 편의 향상"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전남광주 최초로 '인공지능 수기 고지서 세입 처리 자동화 체계(시스템)'를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지방세 신고 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인식해 전산 자료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등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업무 혁신의 하나다.

수기 고지서는 주민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일부 세목에서 활용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에 적힌 정보를 일일이 확인한 뒤 전산 입력하다 보니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런 '수작업'의 수고가 인공지능 자동화 체계 도입으로 사라지게 된다. 주민이 작성한 고지서 내용을 인공지능이 바로 전산으로 옮기고, 담당 공무원은 2차 확인만 하면 돼 세입 관리 업무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세입 처리와 납부 확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주민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인공지능 수기 고지서 세입 처리 자동화 체계'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대기와 확인 절차를 줄여 빠르고, 편리한 세무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쓸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공지능 자동화 덕분에 반복적인 수작업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서비스 편의를 지속해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기 고지서의 정보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 세입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반복적인 자료 입력 대신 검토와 확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 역시 지방세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 수기 고지서 작성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산구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기반 세무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자동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범위를 넓혀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광주 광산구청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